보건복지부	보도참고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	배포 후 즉시 사용	배포	2024. 10. 24.(목)

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 방안 검토

- 의료개혁특위 산하 **「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」 제12차 회의 개최**(10.24) -

의료개혁특별위원회(위원장 노연홍, 이하 '의료개혁특위')는 **10월 24일(목) 오전 10시 「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**(위원장 백경희, 이하 '전문위원회')**」 제12차 회의를 개최**하였다.

지난 11차 회의(10월 10일)에서 **▲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▲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▲형사 특례 법적 구조, 적용 범위, 유형별 효과** 등 **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**에 대해 구체적 **논의**를 **진행**하였다.

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**▲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▲필수의료 사법적 보호**를 위한 **검토 방향**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다.

첫째, 의료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**과도한 대면 조사 등을 최소화**할 수 있도록 **형사처벌이 필요한 중과실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기소**가 이루어지고,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**의료사고 특성상 의학적 감정 결과** 등을 **바탕**으로 **수사 시스템**을 **효율화**하기 위한 **제도 개선 방향**을 검토하였다.

둘째,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중증응급 등 **필수의료 사법적 보호 검토 방향과 관련**하여 **해외 주요국 사례** 등을 검토하며, **사법적 보호 요건**과 **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보호 방안**에 대해 논의하였다.

특히, 영국(잉글랜드, 스코틀랜드), 오스트리아 등 **해외 주요국들이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, 신속한 사고 배상 등 환자권익 보호**와 함께 **의료진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병행**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개선안을 검토하였다.

전문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수사 리스크 완화 등을 포함한 사법적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, **의료사고 형사부담 실태 분석**과 함께 **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 완화**를 위한 **실효적 방안**을 **심층 검토**할 계획이다.

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"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해볼 때, 의료사고로 인한 **의료진의 형사처벌이 방어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 등을 유발**하기 때문에 **우리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의료진의 형사처벌 필요성과 방식을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**할 수 있었다" 라면서,

"의료사고로 인한 **장기간의 소송과 수사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상황**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**환자-의료진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도 완**화할 수 있는 방안을 **함께 고민**해야 한다" 라고 강조하였다.

<붙임> 제12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요

담당 부서	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	책임자	과장	강 준 (044-202-1860)
		담당자	사무관	권용진 (044-202-1861)
	의료기관정책과	책임자	과장	조귀훈 (044-202-2470)
		담당자	사무관	김수영 (044-202-247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제12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개요

□ 일 시: ’24. 10. 24.(목) 10:00~12:00

□ 장 소: 서울역 T타워 회의실

□ 참 석: 특위 위원장·위원,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위원장·위원, 의료개혁추진단 단장·부단장,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등

□ 안건

❶ 전차 회의(11차, 10.10) 결과 보고

❷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

❸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

□ 진행순서

시간		주요 내용	비고
10:00~10:05	'5	**인사말씀 및 모두발언**	특위 위원장, 전문위원장
10:05~10:35	'30	**안건 보고**	
10:35~11:55	'80	**종합토론**	
11:55~12:00	’5	**폐회**	전문위원장